

다시 뛰는 한국축구, 패배 사슬 끊는다

키워드로 본 9월 A매치 2연전

- **필승** 최근 A매치 모두 패 V 기운 절실
- **조화** 베테랑 투입…후배들 리드 기대
- **변화** 이청용-이명주 공격형 MF 실험
- **소통** 훈련 공개…팬들과 적극 스킨십

한국축구가 다시 뛴다. 신대용-박건하-김봉수 3인 코치 체제의 국가대표팀이 남미 강호들과 릴레이 A매치를 펼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인 한국은 5일 베네수엘라(29위·부전), 8일 우루과이(6위·고양)와 격돌한다. 대표팀은 내용과 결과, 명예회복 등 ‘3마리 토끼말이’를 다잡고 있다. 신 코치는 베네수엘라전을 하루 앞둔 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이고 강한 축구로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 4가지 키워드를 통해 9월 A매치 2연전을 짚어본다.

● 필승

패배가 익숙해졌다. 한국은 최근 5차례 A매치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승리는 3월 그리스 원정(2-0)이 마지막이다. 월드컵 본선 직전 튀니지에 0-1, 가나에 0-4로 잇달아 패했다. 6월 월드컵 본선은 참혹했다.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긴 뒤 알제리와의 2차전 2-4, 벨기에와의 3차전 0-1 패배를 당했다. 패배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 조화

기존 ‘홍명보호’에는 젊은 피들이 많았다. 위험 부담이 컸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었다. 월드컵이 그랬다. 베테랑들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30대 초중반 멤버들이 컴백했다. 이동국(35·전북)-차두리(34·서울)-곽태휘(33·알 힐랄)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중전이 된 이근호(29·상주)-이청용(26·불턴)-기성용(25·스완지시티) 등과 함께 손흥민(22·레버쿠젠)-남태희(23·레퀴아) 등 영건들을 이끈다. 주장 이청용도 “(베테랑들의 합류로) 의지할 곳이 많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축구대표팀 이청용, 기성용, 곽태휘(왼쪽부터)가 베네수엘라와의 친선경기를 하루 앞둔 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 변화

대표팀의 기존 포메이션은 4-2-3-1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됐다. 공격에 무게를 실는 한련 압박을 강화하는 4-1-2-3-0으로의 전환이다. 대개 오른쪽 날개로 뛴 이청용이 중앙에 배치된다. 이청용-이명주(24·알 아인)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그 뒤를 기성용이 책임지는 형태다. 윙톱(이동국 유력)과 나란히 손흥민, 조영철(25·카타르SC)이 최전방을 맡는다. 수비 때는 좌우 원포워드가 후진해 4-5-1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 소통

잃어버린 팬들의 신뢰도 찾아야 한다. 소통이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대표팀은 A매치 전담 훈련을 일반에 전면 공개한다. 4일 훈련처럼 우루과이전 전담(7일)에도 팬들에 훈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부 무료입장이다. 월드컵에서 FIFA가 각국 선수단 훈련을 1회씩 팬들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낯설지만 스타와 팬의 거리를 좁힌다는 장점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SK 문경은 감독 “우승 위해 공격력 강화”

남자프로농구 SK와 문경은(43·사진) 감독에게 2014~2015시즌은 매우 중요하다. 문 감독이 정식 사령탑에 취임한 이후 SK는 2012~2013시즌 정규리그 우승, 2013~2014시즌 정규리그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2012~2013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선 모비스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지난 시즌에는 4강에서 LG에 발목을 잡혔다. 문 감독과 SK의 계약은 2014~2015시즌까지다. 새 시즌 성적에 재계약 여부가 달려있다. 문 감독은 챔피언 트로피를 위해 공격력 강화를 선언했다.

● 공격의 분산과 득점력 업그레이드

SK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전지 훈련 중이다. 문 감독은 4일(한국시간) “우리



우승을 위해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포인트는 공격의 분산이다. 그는 “애런 해인즈와 김선형 외에 다른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박승리, 신재호, 김건우 등을 지켜보고 있다”며 외곽포 향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 심사의 활동도 높이기

지난 시즌까지 SK의 주무기는 가드 1명과

새 시즌 팀 성적에 재계약 여부 달려 “박승리·신재호 등 세 득점 루트 고민”

포워드 4명을 쓰는 시스템이었다. 이 전략이 잘 통하면서 2명의 용병 중 해인즈의 출전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골밑 높이 싸움에서 밀려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다. 문 감독은 “새 시즌에는 코트니 심스의 높이를 더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수비만 잘 되면 공격에서 심스의 높이가 빛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SK가 대표 수비전술인 3-2 드롭존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3-2 드롭존은 지난 두 시즌 동안 SK가 정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 감독은 “여전히 우리의 드롭존에 부담을 느끼는 팀들이 많다. 전술을 세밀하게 더 가다듬어 계속 활용하고, 다른 지역방어를 가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어바인(미 캘리포니아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한국배구, 핀란드에 완패

세계남자선수권 B조 2차전 0-3
서브에이스 9개나 내준 게 패인

“서브에서 졌다.” 한국이 3일(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카토비체 스포텍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4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B조 2차전에서 핀란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트스코어 0-3(22-25 24-26 15-25)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B조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1993년 월드컵리그에서 처음 만난 이후 한국-핀란드의 통산대결 성적은 3승8패다. 한국은 서재덕이 9득점으로 팀내 최고득점을 기록했다. 공격(31-33)과 블로킹(8-10)은 핀란드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서브리시브가 흔들려 상대에게 무려 9개의 서브에이스를 내준 것이 패인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하지만 B조 1라운드를 통과하면 10일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한 경기였다. 이번 대회는 각조 6팀 가운데 상위 4팀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경기 후 박기원 감독은 “모든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했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어떤 부분은 준비된 효과가 나오지만 어떤 부분은 아니다. 서브리시브가 결국 오늘 경기를 결정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부유한 정민수 두 명의 리베로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역할을 한 명이 전담한다면 수비에서 선수를 한 명 더 쓰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4일 하루를 쉬 뒤 5일 밤 8시 2연패의 쿠바와 3차전을 벌인다.

카토비체(폴란드) | 김종진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한가위 스포츠이벤트 일정

5일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베네수엘라
(오후 8시 · 부천종합운동장)

프로야구
두산-LG(잠실), NC-넥센(목동)
롯데-SK(문학), 한화-삼성(이상 오후 6시30분 · 대구)

프로골프
[PGA]플레이오프 3차전 BMW챔피언십 1R

씨름
IBK기업은행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상주체육관)

6일

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상주(오후 4시 · 전주월드컵경기장)
제주-전남(오후 7시 · 제주월드컵경기장)
성남-인천(오후 7시30분 · 탄천종합운동장)
[K리그 챌린지]
부천-충주(부천종합운동장)
대구-고양(대구스타디움)
광주-안산(이상 오후 7시 · 광주월드컵경기장)

프로야구
SK-두산(잠실), 롯데-넥센(목동)
LG-한화(대전), KIA-NC(이상 오후 5시 · 마산)

프로골프
[PGA]플레이오프 3차전 BMW챔피언십 2R

씨름
IBK기업은행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상주체육관)

7일

축구
[K리그 클래식]
울산-강남(오후 5시 · 울산수소축구전용경기장)
포항-서울(오후 7시 · 포항스틸야드)
[K리그 챌린지]
강원-대전(춘천송암운동장)
안양-수원FC(이상 오후 7시 · 안양종합운동장)

프로야구
SK-두산(잠실), 롯데-넥센(목동)
LG-한화(대전), KIA-NC(이상 오후 2시 · 마산)

프로골프
[PGA]플레이오프 3차전 BMW챔피언십 3R

씨름
IBK기업은행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상주체육관)

8일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우루과이 평가전(오후 8시 · 고양종합운동장)

프로골프
[PGA]플레이오프 3차전 BMW챔피언십 4R

씨름
IBK기업은행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상주체육관)

9일

프로야구
한화-넥센(목동), LG-KIA(광주)
SK-롯데(사직), 삼성-NC(이상 오후 2시 · 마산)

씨름
IBK기업은행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상주체육관)

10일

축구
[K리그 클래식]
전남-포항(광양축구전용경기장)
상주-제주(이상 오후 7시 · 상주시민운동장)
경남-인천(창원축구센터)
성남-서울(탄천종합운동장)
수원-울산(수원월드컵경기장)
부산-전북(이상 오후 7시30분 ·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프로야구
한화-넥센(목동), LG-KIA(광주)
SK-롯데(사직), 삼성-NC(이상 오후 2시 · 마산)

한가위 수놓을 빅매치

5~9일까지 추석장사 씨름대회 포항-서울 7일 라이벌 리턴매치

한가위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팬들의 시간표에는 빈틈이 없다. 이번 명절에도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진다.

민속씨름은 매해 명절마다 찾아오는 대표 스포츠다. 올해도 어김없이 ‘IBK기업은행 2014 추석장사씨름대회’가 5일부터 9일까지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태백장사(80kg 이하)를 시작으로 금강장사(90kg 이하), 한라장사(110kg 이하), 백두장사(150kg 이하) 결정전이 차례로 열린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백두급에선 지난해 천하장사를 차지한 이슬기(현대고끼리)가 부상 재발로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혼전이 예상된다. 올해 2차례나 꽃가마를 탄 김진(증평군청)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정경진(창원시청), 김민성(구미시청) 등도 천하장사 자리를 노린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은 6~7일 24라운드, 10일 25라운드 일정을 소화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선두 전북 현대와 2위 포항 스틸러스의 행보다. 두 팀은 나란히 승점 44(13승5무5패)를 기록 중이다. 득실차에서 포항이 4점 앞선 전북은 6일 상주상무에 이어 10일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승점 싸움에 나선다. 포항은 7일 FC서울과 설악전을 벌인다. 포항은 F.A컵 16강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연거푸 서울에 달미를 잡힌 바 있다. 포항은 10일 전남 드래곤즈와 25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축구국가대표팀의 A매치도 빼놓을 수 없다. 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일전을 벌인 뒤 추석 당일인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우루과이와 맞붙는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구자용 회장 “한국은 골프강국, 그러나 선진국은 아니다”

KLPGA 취임 2년6개월 기자간담회
“갤러리 관전문화등서 많은 노력 필요”

취임 2년 6개월을 맞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구자용(59·사진) 회장이 “골프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KLPGA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골프강국이지만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다. 골프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프로골퍼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골프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프로골퍼에 대한 예우나 갤러리들의 관전문화 등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일부에선 여전히 골프에 대해 ‘사치’라는 시각도 남아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고남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투어의 현실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구회장은 “KLPGA 투어와 달리 남자투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다가 관심이 떨어질까 안타깝다.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듯 남녀프로골프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남녀투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에 대해선 ‘회원들과의 소통’을 들었고, 앞으로의 첫 번째 과제로는 ‘복지’를 꼽았다. 구 회장은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며 “은퇴 선수 및 투어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투어선수들이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좀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